

		2021. 9. 8.(수) 배포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	보도자료 PRESS RELEASE	감귤아열대연구과장	김창윤	☎ 760-7260
		아열대과수팀장	오명협	☎ 760-7271
		홍보담당자	고희열	☎ 760-7581
동영상 :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후속자료 : 없음

2021년산 제주 레드키위 첫 수출

- 8일 말레이시아로 3톤 선적... 싱가포르 등 8개국 300톤 이상 목표 -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중)은 제주산 레드키위 3톤이 선박편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 수출되는 레드키위는 지난 4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 수확한 극조생 ‘홍양’ 품종으로, 후숙 후 당도는 17브릭스 내외다.
 - 말레이시아 수출가격은 400g 1팩당 전년과 같은 3,000원 수준이다.
-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말레이시아 3톤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8개국 300톤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난해 수출 실적은 7개국* 142.3톤이며, 이는 국내 키위 수출량 389톤의 36.5%다.
 - *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대만
 - 국가별 선호도는 동남아시아는 레드키위(‘홍양’)와 골드키위(‘스위트골드’)를, 일본은 그린키위(‘헤이워드’)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등 수출국을 확대하고, 10월 중순에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판촉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 농업기술원은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 제주대학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국내육성 키위 품종 보급, 안정생산 기술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 오명협 아열대과수팀장은 “국내육성 키위 보급 확대 및 품질 차별화 등을 통해 제주키위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2020년산 제주 키위 수출 현황

2020년산 제주 키위 수출 현황

□ 대상법인: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고혁수)

- 수출실적: 7개국 142.3톤, 752백만원 * 대만 시범 수출
 - 2020년 전국 키위 수출량 389톤의 36.5% 차지
- 과실무게: 레드키위 65~80g, 골드키위 70~80g, 그린키위 80~110g
- 가격(kg): 레드키위 6,500원, 골드키위 6,500원, 그린키위 4,000원
 - * 금년 수출 가격은 작년과 같음
- 품종별 수출국: 레드 및 골드계통(동남아시아), 그린계통(일본)
 - 레드키위('홍양', '엔자레드'), 골드키위('스위트골드'), 그린키위('헤이워드')

수출국 품종	수출국							
	계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대만
합계	142.3	75.8	31.4	17.0	7.0	9.4	0.8	0.9
레드키위	27.6	-	10.4	14.5	2.7	-	-	-
골드키위	34.2	-	21.0	2.5	4.3	4.7	0.8	0.9
그린키위	80.5	75.8	-	-	-	4.7	-	-

□ 수출 현황(2015~2019년): 7개국 875톤

▶ 수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대만

구분	2015년산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2019년산	2020년산
수출국가	5개국	4개국	4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물량(톤)	171	235	80	137	110	142
수출액(백만원)	600	900	320	668	631	752

○ 지원실적

- 키위 산학협력단('15.~'20.): 수출포장재(팩, 상자) 60백만원(1천만원/년)
- 제주도, aT공사: 수출시 표준 물류비 지원 18%(도 15%, aT공사 3%)



올해산 제주 레드키위가 8일 선박편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첫 수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레드키위 올해 첫 수출...300t 이상 목표

동남아·홍콩 등 해외 공략 '박차'

올해산 제주 레드키위가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수출길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제주산 레드키위 3t이 선박편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레드키위는 지난 4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이 수확한 극조생 '홍양' 품종으로, 후숙 후 당도는 17브릭스 내외다.

말레이시아 수출 가격은 400g 1팩당 전년과 같은 3000원 수준이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말레이시아 3t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8개국에 300t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7개국(일본·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얀마·몽골·대만) 142t으로 국내 키위 수출량 389t의 36.5%를 차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레드키위(홍양)와 골드키위(스위트골드)를, 일본에서는 그린키

위(헤이워드)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하고 다음 달 중순에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판촉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과 제주대학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국내 육성 키위 품종을 보급해 안정적인 생산 기술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국내 육성 키위 보급 확대와 품질 차별화 등을 통해 제주키위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k.jinwoo@jeju.ajbo.net
뉴제주일보 6

올해산 제주 레드키위 '홍양' 첫 수출길

도농기원, 말레이시아 3t 선적...우크라이나 등 판로 확대

올해산 제주 레드키위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8일 제주산 레드키위 3t이 선박편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된 레드키위는 지난 4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이 수확한 극조생 '홍양' 품종으로, 후숙 후 당도는 17브릭스 내외다.

말레이시아 수출가격은 400g 1팩당 전년과 같은 3000원 수준이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말레이시아 3t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8개국·300t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등 수출국을 확대하고, 10월 중순에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판촉행사도 개최한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제주신문 3

올해산 제주 레드키위 첫 수출...300톤 이상 목표

제주산 레드키위 3톤이 말레이시아에 올해 처음으로 수출길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중)은 8일 제주산 레드키위 3톤이 선박편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레드키위는 지난 4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 수확한 극조생 '홍양' 품종으로, 후숙 후 당도는 17브릭스 내외다.

말레이시아 수출가격은 400g 1팩당 전년과 같은 한화 3천원 수준이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말레이시아 3톤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싱가포르 등 8개국에 300톤 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7개국 142.3톤



이며, 이는 국내 키위 수출량 389톤의 36.5%다.

국가별 선호도는 동남아시아는 레드키위(홍양)와 골드키위(스위트골드)를, 일본은 그린키위(헤이워드)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하고, 10월 중순에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판촉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동우 기자

제주매일 6



레드키위 3t 말레이시아 수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산 레드키위 3t이 선박편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고 8일 밝혔다.

수출되는 레드키위는 지난 4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 수확한 극조생 '홍양' 품종으로, 후숙 후 당도는 17브릭스 내외다. >>사진

말레이시아 수출가격은 400g 1팩당 전년과 같은 3000원 수준이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말레이시아

3t을 시작으로 내년 3월 까지 8개국 300t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7개국 142t으로 국내 키위 수출량 389t의 36.5%다. 국가별 선호도는 동남아시아는 레드키위(홍양)와 골드키위(스위트골드)를, 일본은 그린키위(헤이워드)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등 수출국을 확대하고, 10월에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판촉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대로그 기자

한라일보 6